

<박사학위논문 소개>

미국 리츠 시장의 꼬리 위험*

Tail Risk in the US REITs Market

저 자: 송 정 섭 (Song, Jeongseop)**

지도교수: Liow, Kim Hiang***

지난 2007-2009 금융위기부터 최근 코로나 시기까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들은 비금융 주식들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줬다.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리츠는 다른 산업보다 더 높은 주가 위험을 보였다.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리츠의 꼬리 위험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네 장의 실증적 연구를 다뤘다.

첫 번째 장에서 지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꼬리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. 이를 위해 연간 사업보고서에 나온 지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적 불확실성 노출(LUE)을 측정했다. 불확실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LUE가 높은 리츠가 더 높은 꼬리 위험을 가졌다. 추가로 2012년 뉴욕에서 일어난 허리케인 Sandy를 외생적 충격으로 사용하여 지역 시장 불확실성의 인과적 영향을 테스트했다. 그 결과 허리케인에 인접한 리츠는 직접적인 재난 피해가 없었지만 더 높은 꼬리 위험을 보였다.

두 번째 장에서는 꼬리 위험이 리츠시장에서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. 리츠 시장의 꼬리위험 상호의존성은 경기변동에 역순환적이고 전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았다. 또한, 같은 S&P 지수에 편입된 리츠들의 꼬리위험이 더 강한 공행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. 이러한 공행은 본사 위치와 부동산 섹터를 공통으로 하는 리츠들 사이에서도 발견됐다. 마지막으로, 꼬리 위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리츠의 부동산 섹터 간 꼬리 위험이 이질적인 군집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줬다.

세 번째 장은 꼬리 위험의 주가 반영성에 대해 조사했다. 구체적으로, 산업 기반 꼬리 의존성 리스크가 주

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. 이를 위해 개별 종목의 꼬리위험 노출을 여러 업종에 포착하는 새로운 꼬리위험 의존성 측정인 산업꼬리노출위험(ITER)을 제안했다. 실증자산가격결정 실험의 결과로 우선 ITER이 높은 리츠가 ITER이 낮은 리츠보다 더 높은 미래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입증했다. ITER 프리미엄은 대형주, 가치주, 고수익주에 더 강하게 나타났고 시장 불황기에 더 높게 나타났다.

마지막으로 꼬리위험 분산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본 논문을 마무리했다. 이 장에서는 리츠 투자자들이 리츠가 큰 손실을 보인 날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인 산업과 안전자산에서 위험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조사했다. 이를 위해 “flight-from-target”이라는 투자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했다.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포트폴리오는 리츠의 꼬리 위험을 최소 20%까지 감소시켰다. 위험-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효율성도 개선되었다. 또한 포트폴리오 이익은 불황 시기에 크게 증가했다.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다른 산업에서 더 높은 이익을 가져다줬다.

주제어 : 꼬리위험, 리츠, 위험원인, 위험프리미엄, 위험분산

Keyword : Tail Risk, REITs, Risk Source, Risk Premium, Risk Diversification

* 본 논문은 필자의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송정섭(2021), '미국 리츠시장의 꼬리위험'을 요약한 것이다.

** 본 학회 정회원, 싱가포르국립대 박사, js.song@u.nus.edu

*** 싱가포르국립대 부동산학과 교수, bizkhl@nus.edu.sg